

Deloitte.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

금융기관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컨설팅

Presented by
이정인 부대표

금융기관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하나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는 겸업규제로 인해 백화점과 같은 편리한 One-stop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일반소비자는 왜 백화점을 자주 방문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편리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물론 어떤 고객은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전문 부티끄샵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분명 백화점 쇼핑의 장점도 있고 전문 부티끄샵 쇼핑의 장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고,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중에서 최적의 쇼핑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폭의 다양화는 소비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금융소비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 금융 산업은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상품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다.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이 별도의 회사로 존재하고 서로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은행업 중에서도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겸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보험업의 경우에도 생명보험(Life Insurance)와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의 겸업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금융지주사의 형태를 취해 각 은행, 보험, 증권업 개별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 만을 허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재의 법률체제를 떠나서 단순히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 많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한 곳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금융소비자의 관점이다.

금융지주사의 형태로는 다양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서는 다양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가? 여러 금융업간의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지주사의 설립 목적중의 하나라면 **오히려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후자의 생각에서 출발한 금융기관의 형태가 종합은행(Universal Bank)체계이다. 그리고 금융 지주사 내에서 증권사와 상업은행의 기업금융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이 CIB(Corporate Investment Banking)이다.

상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의 형태로 여신과 수신업무가 핵심 영업활동이다

은행 별 형태와 특징

우선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상업은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의 모습으로, 핵심영업 활동은 여신과 수신업무이다. 수신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하는 예대마진이 수익 기반이다. 이외에도 전자 결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각종 지급결제 업무와 신용장, 보증 등 난외 계정 관련 서비스, 문서/귀중품 등의 안전 보관 서비스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업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수신업무를 통한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 능력과 폭 넓은 고객 기반을 활용하는 안정적인 수익창출 능력이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고, 지급결제 업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당국으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고 업무에 제약에 많다.

금융기관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하나

투자은행은 자본투자 관련 전문 서비스를 통한 고수익을 추구한다

●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투자은행(IB)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투자주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업은행과 달리 수신업무는 하지 않는다. 정부·공공단체·민간기업의 증권을 발행하기 용이하도록 적절한 조건을 설정하고, 증권의 일부나 전부를 인수한 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다. 또한 주식과 채권, 외환, 대형 프로젝트, 사회간접자본 등의 대체투자, 사모펀드(PEF)에 대한 직접 투자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M&A 자문, 투자 자문, 기업구조 조정 자문, 파생금융상품 매매 서비스 등의 투자와 관련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업과 전문투자자들을 주 고객으로 삼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고, 따라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자금조달, M&A, 투자자문 등 보다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높은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한 고수익을 추구하는 지나친 리스크 수용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CIB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절충적 형태로 겸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한다

● CIB(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CIB(상업은행 기반 투자은행)은 전통적인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IB 부문을 가미한 절충적인 형태의 은행이다. 1999년 미국의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이 제정되면서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업은 허용하지 않고 증권사와의 계열관계만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형태의 금융지주회사인 CIB가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CIB는 여수신 중심의 업무형태에서 증권, 자산관리 등의 비이자이익 업무 비중을 높여 수익기반을 다각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IB는 예금, 카드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가지고 있고 IB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에 비해 강화된 금융감독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보수적 투자 성향으로 인한 고 위험, 고 수익의 잠재 수익원 추구 제한 등의 단점이 있고, 투자은행의 위험이 금융그룹에 제한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 UB(Universal Bank)

UB(은행·증권·보험 업무가 통합된 금융기관)는 CIB와 달리 CB부문이 IB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주로 취하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금지하는 어떠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다.

은행이 보유한 기업,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 은행의 자금력 및 판매망을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를 CIB보다 크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내부 겸업으로 인해 CB와 IB 간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고, IB의 손실이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에 전가될 위험성이 보다 크다.

UB는 유럽에서 발전한 종합금융그룹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동일 기업 내에서 수행한다

금융기관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하나

| | CB | IB | CIB | UB |
|----|------------------------------|-------------------------|-----------------------------|-----------------------------------|
| 구조 | 여신/수신, 지급결제 업무, IB 경영 불가 | 수신기능 없이 IB업무만 수행 | 금융지주 산하 자회사를 통한 업무 다각화 | 은행 내에 IB 업무 담당 부서 설치 |
| 장점 | 낮은 금리 자금 조달, 넓은 고객기반 안정적인 수익 | 금융당국 규제 약함, 빠르고 공격적인 투자 | 은행 고객기반 및 판매망을 자회사가 공동 활용 | CB와 IB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 |
| 단점 | 강한 규제, 업무 제약 | 높은 부채비율, 고위험 | IB 부실의 CB 전파 가능성 (UB 보다 덜함) | IB 부실의 CB 전파 가능성 IB와 CB의 문화 차이 |

표 1. 은행 형태별 구조, 장단점 비교

미국과 유럽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금융겸업을 허용하여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이루었다

해외의 금융겸업 역사

우리나라와 달리 겸업주의가 널리 받아들여진 해외 금융선진국의 겸업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증권업 겸업으로 인한 지나친 위험 추구를 지목하고,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제정해 은행업과 증권업의 사내겸업은 물론 계열사를 통한 증권업 영위도 금지시켰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투자은행업이 새로운 수익 창출원천으로 주목 받았고, 은행의 안정적인 자본조달 능력과 넓은 고객기반과 증권업의 투자은행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와 업무효율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결국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이 제정되어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의 증권업 영위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CIB 모델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러더스 등 독립계 투자은행의 몰락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다시금 주목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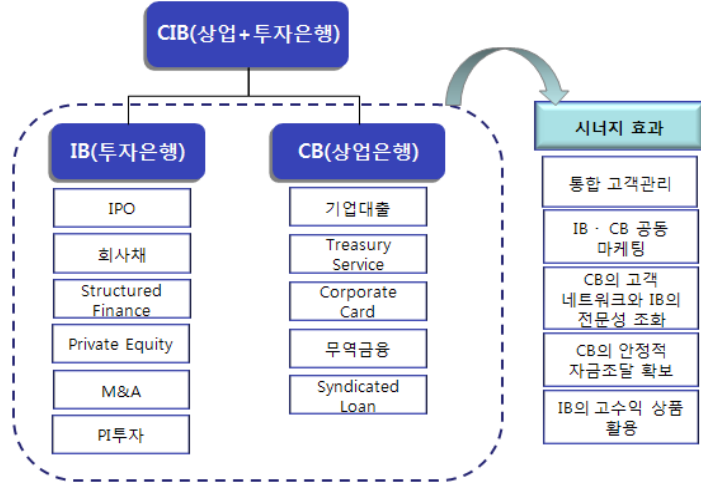
유럽은 미국과 다르게 은행의 증권업 겸업에 대해 과거부터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영국의 경우 기업들간의 신사협정을 통해 각 금융권역간의 배타적인 클럽형식의 체제가 유지되었으나 1986년 증권제도 자유화 이후에 은증겸업이 가속화되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국가의 경우 과거부터 동일 은행 내에서 예대업무와 증권업무를 겸업하고 있는데, 이는 19세기부터 기업의 자금 수요에 부응하도록 대규모 은행을 집중 육성하면서 UB 모델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1933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은행은 증권업무, 증권사는 은행업무를 각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금융기관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하나

전업주의와 겸업주의의 장단점

어느 제도이든 장단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점과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언급하고 싶다.



<그림 1> CIB 조직과 시너지 효과

글로벌 경쟁력과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1)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토대로 어느 제도가 바람직한가

여러 업무를 취급하는 겸업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통한 정보 습득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금융 니즈에 대해 전업 금융기관보다 폭 넓은 이해가 가능하고,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창출이 용이할 수 있다. 반면 전업주의 규제 하에서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경쟁이 금융혁신으로 이어져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경쟁력 대비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산업이 단순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고 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금융서비스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금융제도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느 제도가 효용을 증대시키는가

겸업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생산의 우월성이 주로 거론되는데, 겸업 금융기관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거래고객과 폭넓고 영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고객의 금융 니즈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고객의 필요에 맞는 직·간접금융 서비스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데 들어가는 탐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전업 금융기관은 고객의 특별하고 전문적인 금융 니즈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하나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

요즘은 금융소비자의 주권이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금융기관의 체제는 금융기관의 입장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입장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니즈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최소한 일반소비자가 백화점쇼핑과 전문점쇼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소비자도 통합은행(유니버설은행) 또는 개인 금융 전문은행, 기업금융 전문은행, 투자은행 전문은행 등의 전문금융기관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산업이 미래의 성장엔진이 되어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어느 금융기관 체제가 적정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Deloitte.